

# 강 시장 “통합돌봄은 민주주의 완성·광주정신 실현 상징”

### 광주 세계시장포럼 기조연설...5·18에 기반 둔 도시 포용성 설파 ‘통합돌봄’ 국제도시혁신 최고상...“광주 미래, 돌봄민주주의로 완성”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제도시 혁신상을 수상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정책을 훨씬 넘어서 민주주의의 완성과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대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9일 중국 광저우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장포럼’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광주만의 돌봄 정책 도입 배경과 5·18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둔 민주도시 광주의 포용성 등을 알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 시장은 전 세계 100여 도시 시장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현실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연설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기반한 광주만의 혁신적인 통합돌봄 정책이 도시 안전망·공동체 구축 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 등을 설명했으며, ‘민주·인권 대표 도시’ 광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기조연설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전 세계 도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와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약극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

다”고 전제한 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은 돌봄에 있고,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인 만큼 정부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작했다”고 정책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작점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소개해 포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광주정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도시”라며 “1980년 서로를 돌보는 연대의 정신으로 도시를 지킨 특별한 역사가 있다. 이러한 광주정신에서 오늘날 확장된 것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일상에서 인간으로, 시민으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이웃을 돌보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며 “질병, 노쇠 등으로 발언·투표·참여할 권리가 박탈된 이들은 발언하고, 투표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정책을 훨씬 넘어

민주주의의 완성과 광주정신을 실현하는 대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 약취가 너무 심해 이웃이 돌봄을 신청한 80살 어르신 사례를 들기도 했다.

강 시장은 “고립 생활로 집안은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썩은 음식을 드시며 연명하는 어르신을 구조한 후 씻기고, 식사를 지원하며 영양실조를 막았다”며 “이후 병원으로 모셔가 치매 판정을 받았고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국가돌봄으로 연계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식이 끊긴 아들과 다시 연락이 닿은 것이다. 단순히 서비스 몇 가지를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웃 간에 끊어진 공동체를 연결하는 관계돌봄”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돌봄에서 시작되고 통합돌봄을 통해서 확대되며 돌봄 민주주의로 완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전 세계 도시와 나누고 발전시켜 가겠다”는 다짐의 말로 기조연설을 마무리 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 7일 전 세계 24만개 도시가 가입한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과 인구 100만명 이상 138개 세계 주요 도시가 회원인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등 공동 주관한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시장포럼’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한·중·일 ‘e-스포츠’ 선수·팬 이번주 여수 집결

### 15~17일 완전대면방식 첫 대회...3개국 69명 출전

한·중·일 e스포츠 선수와 팬들이 오는 15일 여수로 집결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형태로 치러졌던 1~2회 대회와 달리, 완전 대면 행사로 개최되면서 글로벌 e스포츠 팬들로 여수 일대가 들쭉날쭉할 전망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주도 국가대항전인 ‘2023 한중일 이스포츠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간 한·중·일 선수단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회는 지난 2019년 한·중·일 3개국 이스포츠 협회 간 업무 협약 이후 정부 주도 국가대항전 형태로 첫 대회(2021년)가 한국에서 치러진 뒤 중

국(2022년) 등 3개국을 순환하며 치러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1회 대회는 무관중, 2회 대회는 한·일 선수단은 한국, 중국 선수단은 중국 현지 경기장에서 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완전 대면 형태로 치러지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3개국 69명의 선수와 감독·전력 분석관 등 90명이 참가해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에이펙스’, ‘이웃볼’ 등 4개 종목별로 리그전을 치러 상위 2개국이 결선을 받게 된다. 공식 대회 기간, 신청한 전남 중·고교생 8개팀

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주 발굴을 위한 학교대항전 ‘배틀오브스쿨’ (15일)이 열리고 30~40대 이스포츠 팬들을 위해 선착순 신청을 받아 ‘아버의 청춘-스타크래프트’ (16일) 대회도 진행된다.

항저우아시안게임 스트리트파이터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국가대표 김관우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관우를 이겨라’ (17일) 행사도 펼쳐진다. 김 선수와 항저우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박준혁 선수의 토크쇼 및 팬미팅 (17일)도 열린다.

대회장에는 11개 이스포츠 팝업스토어가 마련되고 e 드론축구, XR슈팅, XR러닝, 추억의 오락실게임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코너도 꾸며진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 유치 온힘

### 전남도, 우주기술진흥협회와 협약...서울서 100개 기업 초청 설명회

전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유치를 위해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고흥군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원사 100개 기업을 초청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전남도 조재용 신성장산업과장, 공영민 고흥군수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사와 협회 회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설명회에서 민간 발사체 구축을 포함한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 입주기업 지원책 발표 등 전남도 입지 장점과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홍보를 펼쳤다.

또 전남도는 고흥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우주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정책연구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상호협력 내용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2028년까지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 173만㎡ 부지에 국비 3800억원을 투입해 액체·고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이 입주하는 우주산업 전용 국가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5월 국토부, 고흥군, 한국도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와 국가산업단지 상생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민간발사장 등 핵심 기반(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고흥을 국가 우주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농기센터, 연말 상복 터졌네

### 3년 연속 우수기관...스마트농업 대상 등 수상 잇따라

광주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주관한 ‘2023년 우수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곳의 농촌진흥기관 중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농업기술 보급 핵심 성과, 인재 양성, 농업재해 대응 등 평가지표와 대내외 평가, 홍보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매년 우수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하고 있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미래농업 도약 첨단농업 공공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경쟁력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 현장 중심 농업 인 기술 보급, 농촌자원 연계 융·복합산업 활성화, 치유농업 활성화와 정책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앞서 올 들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경진대회 대상, 농업인교육 훈련분야 최우수기관상, 농촌자원분야 최우수기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또 직원들도 농업인대학 운영 장관상을 비롯한 기술보급분야·스마트농업 혁신 우수성과분야·농업기계 안전전론분야 청장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개인적 업무 역량도 인정받고 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 농업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